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동 정

◆ **이근표** 한국공항공사 사장 (前 서울경찰청장)



이 회장은 최근 북경에서 열린 제 5차 동아시아 공항연합(EAAA)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공항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한·중·일 9개 공항장들과 서비스 개선 및 공항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귀국했다.

◆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회장은 (現 법무법인 동인 대표) 최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재직시절 해양경찰청의 차관급 외청 승격을 이루는 등 지난 2004년 1월 취임 이후 2년 7개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지난 8월 퇴임했다.

◆ **성희구** 호텔인터불고 대표 (前 대구경찰청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성 회장은 대구에서 「호텔 인터불고,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호텔 인터불고·호텔루아 빌리지 (화목한 작은 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을)」이란 종교서적을 4집까지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그가 매주 메모해 두었던 찬송, 성경, 하나님 말씀, 기도 등 알찬 내용들이 가득히 수록되어 있다.

◆ **김우현** 산악회장 (前 총경)



김 회장은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재경 밀양시 향우회 정기총회에서 제 2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상대 후보의 응퇴에 따라 대의원들로 부터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추대 되었다. 신임 김 회장은 『밀양시와의 관계 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향우들의 친목 도모와 복지증진에 힘쓰는 등 고향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02-887-4975, 019-375-4975

◆ **강은규** 회장 (충남천안 경우회)



최근 강 회장은 천안시 유량동 소재 천안향교 예절관에서 유교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성균관 유도회 윤여흥 천안지부장으로 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강 회장은 평소 유림교화사업 적극추진과 관련해 방학동안 인건 초·중생들에게 충·효·예 교실 운영 강사로 위촉받아 청소년선도 및 예절교육,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심, 친구간 우정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 왔다.

주 소 변 경

◆ **김경희** (故 김원환 경우회장)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GS 황실 자이@ 101동 1002호
☎ 02-581-8636

◆ **편무신** 회원

충남 아산시 온천동 1910 현대홈타운 103-1102
☎ 041-533-8257

박기륜 경찰청 외사국장, 인터폴 집행위원회에 당선



경찰청 박기륜 외사국장(경무관)이 최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총 186개국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5차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서 집행위원회에 당선됐다. 박 집행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국인이 인터폴 집행위

원에 당선된 것은 김종겸 前 충남경찰청장이 2000년 부총재에 당선된 이후 두 번째다.

집행위원회는 총재 1명, 부총재 3명, 집행위원 9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역

▶동국대 법학 박사 ▶부산 남부서장 ▶경찰청 외사과장 ▶인터폴 사무총국 협력관 ▶서울 강남서장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외사국장

오후 6시 서울 강남역 메리츠 타워 빌딩 옆 아모리소 홀에서

부 음

◆ **이길범** 경무관 (경찰청 홍보관리관)의 모친이 지난 9월 22일 숙환으로 별세.

◆ **윤영환** 경무관 (대구경찰청 차장)의 부친이 지난 9월 28일 숙환으로 별세.

인 사

◆ **경찰청**

• 경무관급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장 金重確(위싱턴 주재관) ▲경향대학 수사보안연구소장 朴鍾燾(경찰혁신기획단장)

• 총경급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황은하 (대전 서부서장) ▲부천중부서장 박운신 (경기경찰청 보안과장) ▲대전서부서장 김익중 (충남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9월 26일자)

행 사

경우산악회 정기총회 개최



경우산악회는 지난 9월 21일 김우현 회장을 비롯한 회원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 포천 운악산을 등반하는 한편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조직발전과 회원 친목도모를 결의했다.

건강칼럼 - 専門醫에 듣는다

뇌 졸 중

— 노재규 교수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뇌졸중이란?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

가 손상되는 병으로 손상된 뇌의 기능 상실은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바로 뇌졸중으로 우리 나라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제1위의 사망 원인이 되며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불구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증상과 원인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으며 뇌졸중이 생겼다고 의심되면 즉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뇌 조직의 손상과 합병증을 막기 쉬워진다.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표)을 평소 잘 알고 있다면 보다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지만 이는 이미 수년 동안 뇌혈관에 이상이 진행된 결과이다. 따라서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은 모두 위험인자라 할 수 있는데, 나이(고령),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1.5-3배 가량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또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그 위험은 커진다. 많은 양의 술을 계속적으로 마시거나 한꺼번에 폭주하는 경우, 비만이 있거나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뇌졸중의 가족력이나 과거에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에도 뇌졸중의 위험성은 증가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혈압과 뇌졸중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4-5배 정도,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2-3배 정도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혈압은 특이한 증상이나 위험 신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당뇨병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고지혈증도 혈액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일단 이 질환들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심장 판막질환 및 부정맥(심장박동

이 불규칙한 병들 중 일부)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위험성은 정상인보다 18배나 높으며 이런 경우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의 지시에 정확히 따라야만 뇌출혈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시 유의사항

뇌졸중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뇌졸중 발생시 구급약으로 알려진 것들을 먹여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뇌졸중 급성기 이후 자연경과에 의해 호전된 예를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치료 또는 민간요법을 통해 효험을 봤다고 믿고, 꾸준한 예방치료를 중단하고 있다가 더 심한 뇌졸중이 재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뇌졸중 발생시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증상 발생 3-6 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게되면 (모든 뇌경색 환자가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막힌 혈관의 혈전 혹은 색전을 용해하는 혈전용해술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뇌졸중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정기검진과 지속적인 치료단련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단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3시간 이내, 안되면 6시간 이내라도) 응급실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급성기 이후의 재활치료와 재활을 막기 위해 MRI, 심장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뇌졸중 예방약을 적절히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뇌졸중의 증상

- 갑자기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온다.
-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혹은 발음이 어눌해진다.
-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진다. 혹 세상의 반이 잘 안 보이고 감광해진다.
-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
- 평소 이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장애가 생기거나, 언어가 달라진다.
- 갑자기 어지럽고 비틀거리거나 몸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경우신문 구독안내 02-2234-1881

초대詩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는 길이라면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빨리 흐르느라고 미처 못다한 강가의 풀잎과도 짙은 이야기 나누며...

별들에게도 화답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무작정 빨리만 가면... 뭐라도 잡을것 같기에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 박돈희 (경우회 기획조정위원)

열심히 앞으로 흐르지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로 간 밧줄은 증발되어 소름으로 변할뿐 앞만 보고 흐르는것이야말로 지독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살아온 물결이 너무나 아쉬워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강물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흐르고 싶습니다.

sys (주)씨스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2005-7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관절에 대한 기능성을 **국내 최초로 식약청 인정**

염증물질 생성 류코트리엔(LTB4)

건강한 관절 → 불편한 관절

관절기능저하

관절기능향상 및 보호에 도움

염증물질 감소(억제)

리프리놀 (lyprinol)

본 광고는 식약청 선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리프리놀은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본 광고는 **KHSA**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를 받았습니다.

관절 기능향상에 도움

염증 억제

유발물질의 생성을 억제

유발과 관련된 물질의 생성이 인체시험에서 감소 되는 것을 확인

하여 관절기능향상 및 개선에 도움

국내 7개 대학병원(다기관)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절기능개선이 확인 되었습니다 (open study). [출처: 최신의학 2002년 2월호]

홍콩대학 퀸메리병원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 한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리프리놀 섭취군에서 관절기능개선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약대조군 이중맹검인체시험) [출처: Progress in Nutrition VOL.6, N.1, 17-31, 2004]

*위 임상결과는 관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리프리놀은 다른 약물이나 식품과 같이 드셔도 안전합니다.

본 제품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최신의학 등 관련 논문이나 책자를 참고하거나 저희 회사로 문의바랍니다.

www.syseshop.co.kr 문의 02-850-2525